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경성[†] ·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부부들이 배우자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귀인차원들이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및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을 가정한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귀인이 한편으로는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가 장차 유사한 행동을 하리라는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공변량구조모형을 수립하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기혼자 493명(남 246, 여 247)의 자료를 수집하여 전반적 모형 및 각 세부 경로들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교차타당화를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배우자 행동의 귀인차원으로는 내외귀인, 공동-공동 이외 귀인, 자기-배우자귀인, 안정, 전반 및 의도귀인 측정치들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가 대부분 .90 이상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변량구조모형이 자료에 부합되었다. 또한 귀인차원별로 제안한 경로 가설들도 대부분 지지되었다. 귀인차원들 가운데 예언이 지지되지 않은 가설만을 살펴보면, 긍정적 행동에서는 내외귀인이, 그리고 부정적 행동에서는 공동귀인이 각각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내외귀인은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외적 귀인의 일부분만을 측정한 자기-배우자귀인은 가설과 다른 방향으로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배우자의 행동을 단순히 행위자의 내외귀인으로만 구분할 경우 양자관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귀인 정보를 간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 및 장차 다루어야 할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부관계, 귀인적 과정, 결혼만족, 이혼의도, 공변량구조모형, 실증연구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귀인은 결혼만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관계에서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및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귀인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론화하고, 이 이론에서 도출된 중요한 가설들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귀인을 다룬 연구들은 개인 행동의 귀인을 다룬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Kelley & Michela, 1980). 하나는 귀인의 선행변인들에 관한 귀인 연구(attribution research)로서 선행변인들이 어떠한 귀인에 이르게 하는지를 다루는 연구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고 가정한다.

[†] 교신저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다른 하나는 귀인이 이루어진 후 귀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들에 관한 귀인적 연구(attributional research)로서 귀인에 따라서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행동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이후의 행동과 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귀인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귀인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배우자 행동에 대한 귀인이 결혼만족, 배우자에 대한 평가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수립했다. 먼저 그림 1에 제시된 모형을 간략히 설명하고 각 경로들이 제안된 이론적 배경을 차례대로 제시한다.

그림 1의 모형에서 배우자 행동에 대한 귀인이 한편으로는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가 장차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다. 구체적으로 각 경로별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1)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행동에 대하여 귀인을 달리하면 이 귀인에 따라서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가 달리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행동에 대한 귀인에 따라서 장차 유사한 행동적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고 보는 기대가 달라지고, 이 기대를 매개로 이

혼의도가 달라질 것이다. (3) 결혼관계에 불만족하고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비호의적일수록 이혼의도가 높을 것이다. (4) 현재 부부관계에 개입되어 있지 않을수록, 그리고 대안관계들이 많을수록 이혼의도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귀인차원들로는 행위자의 내외귀인, 부부 양자를 포괄하는 공동의 내외귀인, 자기-행위자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및 의도귀인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 귀인요인들 가운데 안정귀인만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였다. 안정귀인 이외의 귀인차원들은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처럼 단기적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이혼의 동기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이혼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였다. 이혼의도의 예측에서 안정귀인의 효과만 가장한 이유는 안정귀인이 배우자 행동의 지속성을 추론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결혼관계에서 발생한 행동 사건들의 원인을 안정적으로 귀인할 경우 이와 유사한 행동적 사건들이 이후에도 발생하리라고 기대하게 되고, 이 기대를 매개로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였다. 그림 1의 모형에 제시된 각 경로들이 가정된 이론적 배경을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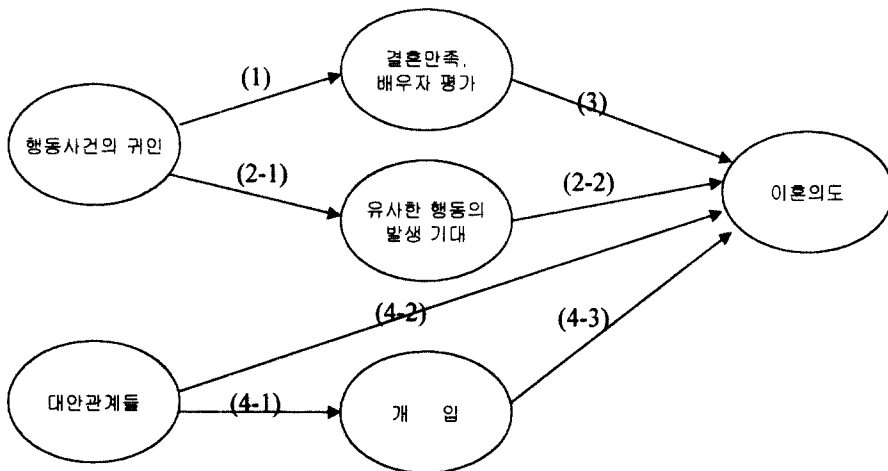


그림 1. 귀인,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및 이혼의도의 관계에 관한 공변량구조모형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결혼관계에서 배우자의 행동을 부정적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긍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따라서 결혼만족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부정적 행동이라도 그 행동의 원인을 배우자의 나쁜 성격이나 귀인자에 대한 배우자의 애정의 결여 때문으로 귀인하게 되면 외적 상황이나 혹은 일시적 분위기 때문에 귀인할 때보다 결혼관계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의 경우에도 긍정적 함의가 크게 나타나거나 최소화하는 귀인들에서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먼저 친밀한 관계에서 귀인차원으로 자주 연구되는 원인의 소재(locus of causality)를 내외귀인으로 구분하는 전통적 분류 범주의 한계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대인관계에서 개인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전통적 분류 범주대로 내외구분법을 사용할 경우 외부 귀인에 포함되는 상대방, 외부 상황, 및 제삼자의 영향들 가운데 어떤 요인을 지칭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이경성 · 한덕용 · 강혜자, 1995). 친밀한 관계에서 이 세 귀인 범주들은 귀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감정이나 기대 등의 측면에서 각각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내적 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는 전통적 내외귀인차원을 친밀한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양자관계에서 독특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정보를 간과할 수 있다. 또한 친밀한 대인관계를 다룬 일부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기-배우자 귀인은 외적 귀인에 행동의 대상이 되는 객체인 배우자귀인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환경요인들은 제외된다. 분석단위의 측면에서 살펴보다라도 관계를 구성하는 양자가 한 단위가 되는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양자관계수준의 귀인에 관한 분석을 제외하고 개인수준의 귀인만을 적용하는 분류체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귀인은 개인수준에서는 외적 귀인이 되지만 양자관계를 분석의 단위로 보면 내적 귀인이 된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행위자와 상대방이 함께 원인이 되는 양자 공동귀인은 개인수준의 귀인체제로 보면 어느 한 극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친밀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귀인

을 기존의 내외귀인체제로 분류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서 적절치 않다.

이 점은 한국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귀인 내용들을 차원으로 요약한 결과에서도 잘 드러났다(이경성 · 한덕용, 2000).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한국의 부부들이 자주 사용하는 귀인의 내용들은 ‘배우자-배우자 외 귀인’, ‘자기 혹은 배우자 자기 혹은 배우자 외 귀인’ 및 ‘공동-공동 외 귀인’의 3차원으로 요약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개인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내외귀인 구분 외에도 양자관계수준에서 내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본 연구는 이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 배우자의 행동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귀인 범주들에 따라서 귀인하면 배우자의 평가, 관계만족 및 이혼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행위자의 행동을 설명할 때 내외귀인, 공동의 내외귀인, 자기-행위자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및 의도귀인의 측면에서 각각 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배우자가 긍정적 행동을 한 경우에 이 행동이 지니는 긍정적 함의는 각각 배우자 외적귀인보다 내적귀인, 공동의 외적귀인보다 공동의 내적귀인, 자기귀인보다 배우자귀인, 불안정귀인보다 안정귀인, 구체귀인보다 전반귀인, 그리고 비의도귀인보다 의도귀인하는 조건들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이 배우자 내적귀인, 공동의 내적귀인, 배우자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및 의도귀인 되면 각각 배우자 외적귀인, 공동의 외적귀인, 자기귀인, 불안정귀인, 구체귀인 및 비의도적 귀인될 때보다 부부관계에 더 만족하고 배우자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에 배우자가 부정적 행동을 한 경우에 그 행동이 갖는 부정적 함의는 각각 배우자 외적귀인보다 내적귀인, 공동의 외적귀인보다 내적귀인, 자기귀인보다 배우자귀인, 불안정귀인보다 안정귀인, 구체귀인보다 전반귀인, 그리고 비의도귀인보다 의도귀인하는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이 배우자 내적귀인, 공동의 내적귀인, 배우자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및 의도귀인되면 각각 배우자 외적귀인,

표 1. 결혼만족 및 배우자에 대한 호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귀인차원에 관한 가설들의 요약

	원인의 소재					
	배우자 내외귀인	공동의 내외귀인	자기-배우자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의도귀인
긍정적 행동사건	내적귀인	내적귀인	배우자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의도귀인
부정적 행동사건	외적귀인	외적귀인	자기귀인	불안정귀인	구체귀인	비의도귀인

공동의 외적귀인, 자기귀인, 불안정귀인, 구체귀인 및 비의도귀인될 때보다 부부관계에 더 불만족하고 배우자를 더 비호의적으로 평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예언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친밀한 관계에서 앞서 요약된 가설들과 유사한 관점에서 귀인과 관계만족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상당히 많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자료를 얻었으며 극소수의 연구들만 종단 자료를 통해서 귀인과 관계만족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귀인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횡단적 연구법으로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결혼만족과 특정 행동적 사건에 대한 귀인 반응들을 측정 한 후 이 귀인 반응들이 결혼만족과 각각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귀인과 관계만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1시점에서 이성 간 연애의 지속이나 혹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귀인 반응들을 측정하고 2시점에서는 관계만족을 측정하여 귀인들이 관계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들에서 다루는 귀인차원들의 수는 매우 다양해서 1개 귀인차원을 다룬 연구로부터(예: Kyle & Falbo, 1985의 내외귀인; Silars, 1985의 비난귀인) 7개 차원들을 다룬 연구도 있다(예: Camper, Jacobson, Holtzworth-Munroe, & Schmaloring, 1988 - 내외, 안정, 전반, 의도, 특성/상태, 의지, 태도귀인).

일부 연구자들은 각 귀인차원들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지 않고 일부 귀인차원들에서 평정한 값들을 합산한 값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e.g., Fincham & Bradbury, 1993). Bradbury와 Fincham(1990)은 이 기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각 귀인차원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을 개관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 자기/배우자, 안정/불안정, 구체/전반의 귀인차원을 결혼만족

과 관련되는 대표적 귀인차원으로 다루었다. 이들은 이 귀인차원들이 결혼만족수준에 따라서 일정한 형태로 달라지는 점에 초점을 두고 귀인차원들을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복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내적, 안정 및 전반귀인하고 상대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외적, 불안정 및 구체귀인하여 행복을 고양시키고(relationship enhancing attribution), 불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달리 상대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내적, 안정 및 전반귀인하고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외적, 불안정 및 구체귀인함으로써 불만을 유지한다(distress maintaining attribution)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세 귀인차원들을 단일 개념으로 통합하는 근거로 신뢰도를 산출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세 귀인차원들로 구성된 귀인지수의 신뢰도가 .85 ~ .88에 이르렀다(Fincham과 Bradbury, 1993). 이들은 이 결과에 근거를 두고 귀인차원들에서 얻은 평정치들을 합산하여 이 값과 관계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Fincham & Bradbury, 1993; Fincham & Linfield, 1997). 이들의 연구처럼 여러 귀인차원들에서 얻은 평정치들을 합산하려면 귀인차원들이 단일차원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상호상관이 높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부들이 배우자 행동을 귀인할 때 결혼만족수준에 따라서 여러 귀인차원들이 상호상관되는 일관된 형태를 이루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여러 귀인차원들에서 얻은 평정치들을 합산하는 기법의 타당성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배우자 행동에 대한 안정귀인이 기대의 매개를 통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Weiner(1986)가 제안한 성취귀인이론은 성취 결과에 대해 귀인한 결과가 정서와 이후의 수행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귀인 후의 과제 수행에서도 동일한 결과

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였다. 그는 성취의 결과가 초래된 원인을 안정적으로 귀인한 정도에 따라 다음 과제수행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기대수준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성취 결과에 대해서 안정귀인하면 이후 수행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Weiner의 논리를 이혼의도를 예언하는데 적용하였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려는 동기는 결혼관계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을 안정 귀인하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불변하는 안정적 원인에 귀인된 행동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행동을 유발시키리라는 기대를 높이기 때문에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귀인을 장차 유사한 행동이 발생 하리라는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귀인차원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안정귀인만이 유일하게 행동의 지속성을 추론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가설이 도출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외귀인의 경우에는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 모두 안정적이거나 불안정 귀인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적귀인된 수준이 동일할지라도 내적·불안정적 원인 때문(예: 상대방이 피로해서)에 행동이 발생했다고 귀인할 때보다 내적·안정적 원인 때문(예: 상대방이 원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에 행동이 발생했다고 귀인할 때만 장차 유사한 행동이 발생하리라는 기대가 더 높게 된다. 따라서 유사한 행동의 발생 기대는 안정귀인수준을 제거하면 내외귀인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반귀인은 원인이 한정된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모든 상황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로서 정의된다. 이 전반귀인 역시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시적인 원인 때문에 행동이 발생했다고 귀인할 때보다(전반·불안정귀인) 한정된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원인 때문에 행동이 발생했다고 귀인할 때(구체·안정귀인) 장차 그 행동이 다시 발생하리라는 기대가 더 높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 원인인지 구체적 원인인지와 무관하게 그 원인이 안정적 혹은 불안정적 수준에 따라서 유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리라는 기대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행동의 안정귀인이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는 직접적 경로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혼의도에 대한 영향은 기대를 매개로 작용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기대의 매개로 나타나는 안정귀인의 효과를 이혼의도의 예언에만 한정해서 설정하였다. 안정귀인이 기대를 매개로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행동이 안정귀인되면 불안정귀인될 때보다 지금까지 이미 유사한 행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장차 이와 유사한 행동이 또 다시 발생하리라는 기대가 불확실하더라도 이 기대수준과 상관없이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요약하면 기혼자들은 결혼 상황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행동을 안정귀인하는 수준에 따라 이후 유사한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기대수준이 달라지고, 이 기대가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이 가설을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여 가설들의 요약에서 제시하였다.

결혼만족과 배우자평가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만족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관계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한 구체적 예언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예컨대, Thibaut와 Kelley(1959)는 관계해체가 현재 지속되는 양자관계 이외에 대안 관계에서 기대되는 성과와 현재의 양자관계에서 얻는 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Levinger(1979)는 관계만족이나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직접적으로 관계의 해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연애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계만족이나 상대방 평가가 관계해체를 예언하는데 기여하는지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관계만족과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관계의 해체에 영향을 미쳤다(e.g., Lund, 1985; Berg & McQuinn, 1986; Rusbult, 1983). 이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과 배우자평가가 관계해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연애관계나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에는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에 관계가

해체되어서 이혼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관계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기가 어렵다. 필자는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관계해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내려고 시도한 종단연구를 단 하나 찾아냈을 뿐인데, 이 연구에서도 연구기간에 부부관계가 해체된 부부들이 한 두 사례 뿐이었기 때문에 결혼관계의 해체를 예언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기 어려웠다(Van Yperan & Buunk, 1990).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의 결정에 근접요인으로 작용하는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관계해체의 결정에서 관계만족과 배우자 평가가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결혼관계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일수록, 이혼의도가 낮을 것이다.

대안관계와 부부관계의 개입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행동적 사건의 귀인, 결혼만족 및 배우자 평가 이외에 관계의 해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로는 대안관계와 현 부부관계의 개입수준을 들 수 있다. 대안관계는 Thibaut와 Kelley(1959)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들은 대안관계의 질(quality of alternative)을 언급하면서 이를 대안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로 정의하였다. Thibaut와 Kelley 이후에 대안관계는 현 관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예컨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지) 혹은 대안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한편 관계개입은 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모든 힘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Thibaut와 Kelley(1959)의 의존성이나 Levinger(1979)의 관계옹집성도 넓은 의미에서 관계개입으로 볼 수 있다. Johnson(1982)은 개입이 크게 ①관계를 지속하려는 개인적 욕망인 인적 개입, ②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느낌인 도덕적 개입, ③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식인 구조적 개입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입을 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모든 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Johnson의 제안 가운데 ①도덕적 의무나 책임, Thibaut와 Kelley의 제안인 ②현재 부부관계에 대한 의존도, 및 Rusbult가 제안한 ③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에 투자한 수준을 포함하였다. Johnson이 제안한 요인 가운데 인적 개입은 이혼의도나 만족과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대안관계의 질과 관계개입이 현 관계의 지속이나 해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Thibaut와 Kelley(1959)의 상호의존이론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이래, Levinger(1979)나 Rusbult(1980, 1983)에 의해서도 다루어졌다. Thibaut와 Kelley(1959)는 관계의 해체가 대안관계에서 기대되는 성과와 현 관계 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안관계에서 기대되는 성과가 현 관계에서 얻어지는 성과에 못 미치는 경우(CL-alt) 기존 관계에 의존하게 되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대안관계에서 기대되는 성과가 현 관계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초과하면 더 이상 그 관계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 관계의 해체에 영향을 미친다. 의존을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 즉 개입으로 보면 Thibaut와 Kelley(1959)의 이 주장은 대안의 질과 현 관계의 질의 비교 결과가 개입에 영향을 미치며 개입은 이혼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Levinger는 현재관계의 질과 대안관계의 질이 직접적으로 개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했다. Levinger(1979)에 따르면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과 대안에 대한 매력에 의해서 관계의 지속-해체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관계매력은 그 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힘이 되고 대안매력은 그 관계를 떠나게 하는 힘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서 관계 유지의 힘을 개입으로 보고 Levinger 이론으로 관계매력과 대안매력, 개입 및 이혼의 관계를 설명하면 관계매력은 개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안매력은 개입에 부적 영향, 이혼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Rusbult(1980, 1983) 또한 대안관계의 질이 개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Rusbult는 만족, 대안들의 질 및 투자의 크기(예: 시간과 에너지, 서로의 친구들)가 개입에 영향을 미치며, 개입수준이 관계 지속-해체의 결정을 매개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대안관계의 매력은 부부관계의 개입에 영향을 미치며 또 가용한 대안관계나 관계개입은 관계해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부부들은 현재의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대안관계가 많을수록 부부관계에 덜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덜 개입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대안이 많을수록 이혼의도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들 요약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본 연구의 가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서 귀인차원의 효과에 관한 가설:

가설 1.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의 효과: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에 따라 결혼만족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1-1)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이 배우자 이외의 원인보다 배우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1-2) 자기와 배우자 두 사람 이외의 원인보다 두 사람 모두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1-3) 자기보다 배우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1-4) 불안정한 원인보다 안정된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1-5) 결혼생활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원인보다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1-6) 의도없이 이루어지기 보다 의도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결혼관계에 더 만족하고 배우자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가설 2.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의 효과: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에 따라 결혼만족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2-1)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이 배우자 이외의 원인보다 배우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2-2) 자기와 배우자 두 사람 이외의 원인보다 두 사람 모두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2-3) 자기보다 배우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2-4) 불안정한 원인보다 안정된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2-5) 결혼생활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원인보다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2-6) 의도없이 이루어지기 보다 의도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결혼관계에 더 불만족하고 배우자를 더 비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안정귀인과 이혼의도의 관계에서 기대의 매개 효과에 관한 가설:

가설 3.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안정귀인의 효과: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이 불안정한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 때보다 안정된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3-1) 장차 이와 유사한 긍정적 행동이 발생하리라고 기대하게 되어서 (3-2) 이혼의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4.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안정귀인의 효과: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이 불안정한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 때보다 안정된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할수록 (4-1) 장차 이와 유사한 부정적 행동이 발생하리라고 기대하게 되어서 (4-2) 이혼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혼의도에서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대안관계 및 개입의 효과에 관한 가설:

가설 5.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효과:

(5-1) 결혼관계에 만족할수록, (5-2)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일수록, 이혼의도가 더 낮을 것이다.

가설 6. 대안관계와 개입의 효과:

(6-1) 대안관계가 많을수록 부부관계에 덜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6-2) 부부관계에 덜 개입되어 있을수록, (6-3) 그리고 대안관계가 많을수록, 이혼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 조사는 1997년 9월에서 12월까지, 그리고 1998년 3월에서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근무하는 기혼자들에게 직접 배부해서 기입하도록 하거나, 서울시와 대구시, 대전시 및 전주시의 대학생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질문지와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주어 조사대상이 작성한 후 직접 우체통에 넣도록 하는 우편

회수를 통해서 얻었다. 배부된 1000부 가운데 531부가 회수되어서 5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자료의 충실도가 의심되는 자료나 반응이 누락된 38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493명(남 246, 여 247)의 자료가 분석되었는데,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질문지의 구성 및 절차: 질문지는 지시문을 포함하여 총 15쪽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는데, 남편용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지칭하는 란에 '아내'를, 아내용 질문지의 경우에는 '남편'을 적어 넣은 점만 제외하고 두 질문지의 내용은 동일했다. 질문의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3개월 동안 배우자가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한 행동 가운데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적고, 그 행동을 한 원인이나 혹은 이유를 적게 한 후, 이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 귀인차원 별로 9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했다. 그 다음 가장 나쁘다고 생각되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순서로 평정하도록 했다. 행동의 기술 및 귀인차원에서의 평정 순서가 이후 결혼만족 등의 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하여 행

동의 유인가에 따라서 제시 순서를 달리한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좋았던 행동 → 나빴던 행동, 나빴던 행동 → 좋았던 행동). 가장 좋았던 행동과 나빴던 행동 각각에 대해서 행동의 원인을 기술하고 귀인차원들 상에서 평정이 끝난 후에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개입, 대안관계 및 이혼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하고(9점 척도),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질문에 응답토록 했다.

변인들의 측정: (1) 귀인차원: 귀인의 소재를 다루는 귀인으로는 내외귀인, 공동귀인 및 자기-배우자귀인을 다루고, 그 외에 안정귀인, 전반귀인 및 의도귀인을 다루었다. 구체적 측정 문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9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내외귀인: 배우자가 그 행동을 한 원인이 배우자(배우자의 성격, 기분 등)에게 있는지 혹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요인에 있는지.

자기-배우자귀인: 배우자가 그 행동을 한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혹은 배우자 자신에게 있는지.

공동귀인: 배우자가 그 행동을 한 원인이 나와 배우자에게 있는지 혹은 부부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인지.

표 2. 전체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

연 령	N	결혼기간	N	가족구성	N	자녀	N	초 혼	N	별거경험	N
30세이전	141(28)	5년 내	185(37)	부부가족	63(12)	없다	69(13)	초 혼	478(96)	있 다	41(8)
31 - 40세	182(36)	6 - 10년	90(18)	핵가족	350(70)	1명	130(26)	아니다	8(1)	없 다	447(90)
41 - 50세	119(24)	11 - 15년	53(10)	시부모와	51(10)	2명	231(46)	무응답	7(1)	무응답	5(1)
51 - 61세	50(10)	16 - 20년	58(11)	친정부모와	11(2)	3명이상	66(12)				
무응답	1(0)	21 - 25년	84(17)	기타	14(2)	무응답	2(0)				
		26 - 30년	16(3)	무응답	4(0)						
		무응답	7(1)								

직업	본 인			배 우 자			교육 수준	본 인			배 우 자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있 다	229(93)	151(61)	380(77)	94(38)	223(90)	317(64)	중졸이하	8(3)	16(6)	24(4)	22(8)	13(5)	35(7)
없 다	13(5)	90(36)	103(20)	133(54)	11(4)	144(29)	고등졸업	64(26)	123(49)	187(37)	92(37)	72(29)	164(33)
무응답	4(1)	6(2)	10(2)	19(7)	13(5)	32(6)	대학이상	172(69)	103(41)	275(55)	119(48)	152(61)	271(54)
							무 응 답	2(0)	5(2)	7(1)	13(5)	10(4)	23(4)

주) 괄호 안은 %임.

안정귀인: 그 원인이 시간에 따라서 그 때 그때 달라지는 원인인지 혹은 불변하는 원인인지.

전반귀인: 그 원인이 이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결혼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의도귀인: 그 원인이 의도적이었는지 혹은 의도적이지 않았는지.

(2) 유사한 행동의 발생 기대: 유사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확률을 묻는 기대는 배우자가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가능성 없다(1)부터 확실하다(9)까지의 9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3) 결혼만족: 결혼만족은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을 각각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4) 배우자 평가: 배우자 평가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으로 정의되는데, 배우자의 행복을 지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친밀성,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일체감 형성,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열정을 포함하는 애정의 3요소로 측정했다. 각 요소 별로 보면 친밀성을 측정하는 6문항, 상호 의사소통수준을 측정하는 6문항, 그리고 애정을 측정하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이혼할 경우의 대안관계: 이혼할 경우의 대안관계는 이혼했을 때 경제적 자립 가능성, 재혼 상대를 구할 가능성, 그리고 현재 대안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 결혼관계 개입: 개입은 배우자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모든 힘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부부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는 4문항,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에 투자한 수준을 측정하는 4문항, 그리고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7) 이혼의도: 이혼의도는 이혼이나 혹은 별거를 원하고, 계획하고, 이혼을 실천하려는 시도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혼 혹은 별거하고 싶은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 이혼 계획수준을 측정하는 3문항, 실제로 이혼을 시도한 경험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확실히 그렇다(9)에 이르는 9점 척도로 평

정하도록 하였다.

조사 자료의 반분: 본 연구에서 수립한 인과모형과 아울러 각 세부 경로들에 관한 가설 검증의 결과가 다른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493명의 자료를 각각 247명과 246명으로 나누어서 두 표본을 만들었다. 반분된 두 자료가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인들에서 서로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변인들에서 두 자료가 동일하도록 반분하였다; 성별, 연령, 결혼기간, 자녀 수, 막내 자녀의 연령, 본인의 직업, 배우자의 직업, 본인의 교육수준, 배우자의 교육수준, 초혼 여부, 초혼이 아닌 경우 몇 번째 결혼인지, 별거의 경험 유무, 별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거의 회수, 총 별거 기간, 가출 경험 유무, 현재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를 묻는 결혼상태, 별거상태인 경우에는 별거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지, 친척/친구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이 결과를 기초로 반분한 자료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두 자료에서 각각 얻은 검증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자료의 분석: 먼저 첫 반분 자료(247명)로 구성개념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구성개념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반분된 첫 자료에서 일련의 요인분석을 거쳐서 확인된 구성개념들의 요인구조가 다른 표본에서도 교차타당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머지 반분된 자료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 행동의 귀인과 결혼만족 및 배우자 평가의 관계, 그리고 결혼만족 및 배우자 평가와 이혼의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의 지지여부가 두 반분 자료들에서 동일한지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반분 자료에서 가설과 관련된 경로들의 모수치들이 동일하도록 통계적으로 제약을 주고 중다표본분석(multi-sample analysis) 기법으로 분석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수립한 공변량구조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들이 좋은지, 두 반분 자료에서의 공변량구조모형과 세부 경로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부합지수가 좋고 두 반분 자료의 공변량구조모형이 차이가 없을 경우 전체 자

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PC용 8.03판을 이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SAS 6.12를 이용하였다.

결 과

구성개념들의 확인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의 측정치들의 신뢰도, 구성개념을 이루고 있는 문항들의 내용, 문항-전체 상관계수, 및 요인부하량을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구성개념 측정치들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α)로 계산했으며, 요인부하량은 공통변량(communality)의 초기값을 중다상관지수(SMC)으로 한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여 얻었다. 여러 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 구성개념의 경우에는 스크리검사와 누적변량비율, 평행성분석 및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요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초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는데, 구성개념을 이루는 하위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가정되었고 문항들의 좌표배열도 직각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각회전(oblique rotation)하였다¹⁾.

첫 반분 자료에서 구성개념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해서 얻은 구성개념들의 요인구조가 자료와 부합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해당 요인에만 부하되고, 잔차들 간에 상관은 없으며, 요인들 간에는 상호상관이 있도록 설정하였다. 모형에는 한 문항으로 측정된 귀인차원들을 제외한 모든 구성개념들을 포함하였다. 계산의 방법으로는 측정변인이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비가중최소자승법(unweighted 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였다. 비가중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이유는 구성개념을 이루는 개별 측정변인들의 정상분포가

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hapiro-Wilks 검증을 한 결과에서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가중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변량구조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지 나타내는 전반적 부합지수로는 다변량 정상분포의 위반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기초부합치(GFI: goodness of fit index),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표준부합치(NFI: normed fit index) 및 원소간 평균잔차(RMR: root mean square residual)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자료로는 상관행렬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얻은 전반적 부합지수들은 표 4의 상단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여러 부합지수들 가운데 원소간 평균잔차는 좋은 부합의 기준인 .05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기초부합치, 조정부합치 및 표준부합치는 좋은 부합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90(Bentler & Bonett, 1980)보다 높아서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었다.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의 요인계수 추정치도 대부분 높은 수치이고 이에 대한 고정지수도 모두 2보다 커서 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높은 수렴타당도를 지니고 있었다²⁾.

나머지 반분자료에서 구성개념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앞에서 반분된 자료에서 얻은 구성개념들의 요인구조가 반분된 나머지 자료에도 교차타당화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타당화 분석에서 얻은 측정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들을 표 4의 하단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전반적 부합지수들 가운데 하나인 원소간 평균 잔차는 .05보다 다소 크지만 기초부합치, 조정부합치 및 표준부합치는 모두 .98로서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요인계수 추정치도 대부분 높은 수치이고, 이에 대한 고정지수들도 모두 2보다 커서 앞의 반분자료에서 얻은 구성개념들의 요인구조가 교차타당화되었다.

1)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와 요인구조에 관한 자료는 지면의 제한 때문에 실지 않았다. 이 자료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교신저자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다.

2) 측정 모형의 LISREL 요인계수 추정치는 지면의 제한 때문에 실지 않았다. 이 자료에 관심이 있는 독자 또한 교신저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3.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 측정의 신뢰도, 문항-총점 상관계수 및 요인부하량

문 항	신뢰도	문항 - 총점상관	요인부하량
결혼생활 만족	.95		
나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		.83	.85
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82	.84
나의 결혼생활은 권태롭다(-)		.71	.73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바라던 것들이 충족되었다		.69	.71
나는 남편(아내)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84	.86
나는 남편(아내)에 대해서 만족한다		.82	.84
나는 남편(아내)에게 불만이 많다(-)		.74	.75
나는 남편(아내)이 지겹다(-)		.82	.85
나는 마치 못해 남편(아내)과 함께 산다(-)		.78	.81
나는 현재 남편(아내)과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86	.88
애 정(HKP=0.4)	.90		
애 정			
우리 부부는 서로 애정 표현을 잘하는 편이다		.67	.70
우리 부부는 신체적 애정 접촉이 별로 없다(-)		.75	.78
우리 부부는 성관계에 만족한다		.61	.64
우리 부부관계는 형식적이다(-)		.76	.79
남편(아내)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럽다(-)		.77	.82
남편(아내)은 나에게 애정을 못 느낀다(-)		.75	.81
남편(아내)은 나에게 성적인 관심이 없다(-)		.76	.81
상호의사소통	.92		
우리 부부는 마음이 잘 통한다		.81	.86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잘 이해한다		.83	.87
나는 남편(아내)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78	.82
우리 부부는 서로 속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83	.86
우리 부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75	.78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낀다(-)		.70	.72
친 밀 성	.88		
나는 남편(아내)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72	.77
내 남편(아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67	.73
나는 남편(아내)이 소중하다		.76	.81
나는 남편(아내)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61	.65
나는 남편(아내)을 사랑한다		.78	.83
나는 남편(아내)과 떨어져 있으면 허전하게 느낀다		.64	.68
이혼할 경우의 대안관계	.68		
나는 이혼하고 싶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다(-)		.52	.66
나는 이혼하고 싶어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54	.68
나는 이혼하고 싶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혼할 수 없다(-)		.35	.46

표 3. 계속

문항	신뢰도	문항-총점상관	요인부하량
나는 남편(아내)과의 결혼생활 이외에 다른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다(-)		.27	.32
만약 남편(아내)과 헤어지더라도 경제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52	.61
만약 남편(아내)과 헤어지더라도 나는 재혼할 상대를 구할 수 있다		.31	.38
부부관계 개입(HKP=0.4)			
현재 개입	.74		
만약 남편(아내)과 이혼한다면 자유롭게 출가분할 것이다(-)		.57	.66
나는 남편(아내)과 헤어져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50	.58
나는 남편(아내)과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어렵다		.52	.61
나는 남편(아내)과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헤어질 엄두가 나지 않는다		.57	.65
과거 투자	.73		
나는 내 결혼생활에 내 정성을 다 쏟아 왔다		.61	.79
나는 결혼한 후 남편(아내)과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었다		.71	.84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했다		.30	.34
나는 남편(아내)과 헤어질 수 없을만큼 결혼생활에 노력 기울였다		.50	.57
의무감·책임감	.75		
나는 결혼관계를 계속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48	.56
결혼관계를 끝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48	.57
나는 남편(아내)과 이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66	.75
나는 결혼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56	.66
이혼의도(HKP=0.3)			
이혼/별거의도	.93		
나는 남편(아내)과 함께 살 의사가 없다		.78	.80
나는 남편(아내)과 한동안 떨어져 살고 싶다		.85	.88
나는 남편(아내)과 별거하고 싶다		.91	.93
나는 남편(아내)과 이혼하고 싶다		.85	.88
나는 언젠가는 남편(아내)과 이혼하겠다		.79	.83
남편(아내)과 헤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73	.75
이혼시도	.88		
지난 6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친구와 의논한 적이 있다		.73	.77
지난 6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부모와 의논한 적이 있다		.76	.79
지난 6개월 동안 이혼할 경우 자녀 양육이나 위자료 문제를 알아본 적이 있다		.79	.87
지난 6개월 동안 이혼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76	.84
이혼계획	.77		
가까운 장래에 이혼할 작정이다		.67	.75
나는 남편(아내)과의 관계가 오래 동안 지속되길 원한다		.60	.69
나는 남편(아내)과 이혼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57	.65

주) (-)는 역코딩했음을 의미한다.

표 4. 측정 모형의 부합도 지수들

부합지수	RMR	GFI	AGFI	NFI
첫 반분자료	.068	.98	.98	.98
나머지 반분자료	.066	.98	.98	.98

표 5.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별로 종다표본 분석해서 얻은 부합도 지수들

부합지수	RMR	GFI	NFI	NNFI
긍정적 행동	.15	.92	.87	.89
부정적 행동	.14	.92	.88	.91

종다표본분석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각각 수립된 전반적 공변량구조모형과 구체적 경로들에 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가 두 반분 자료에서 일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종다표본분석(multi-sample analysis)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각각에 대해서 두 반분 자료에서 가설과 관련된 경로들

의 모수치들이 동일하도록 제약을 준 다음에 종다표본 분석 방법으로 공변량구조분석을 하였다. 이 때 모수치는 앞에서처럼 비가중최소사승법으로 산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하위 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각 요인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종다표본분석 방법으로 검증할 때는 각 하위요인들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들의 측정치는 그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공변량구조모형에서 일부 귀인차원들은 상호관련성이 가정되지만 상관관계를 가정할 경우 상호상관되는 변량이 제외된 일부분의 영향력만 검토되기 때문에 각 귀인차원들의 독자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귀인차원들 간 상관관계는 가정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각각에서 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보면 두 행동 모두에서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들이 대체로 좋은 부합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90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표 5 참조).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서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

표 6. 전체 자료에서 구성개념별 측정치들의 평균(SD) 및 상관행렬

	긍정행동		부정행동		귀인차원				배우자 평가			개입			유사 행동		이혼의도			
	평균(SD)	평균(SD)	내의	공동	자-배	안정	전반	의도	결혼 만족	친밀성	소통	애정	개입 의무	투자	대안 관계	기대	이혼의도	이혼 시도	이혼 계획	
내외귀인	5.90(2.30)	5.31(2.24)			.27	.34	.05	.17	.16	-.19	-.13	-.21	-.11	-.03	-.03	-.12	.17	.16	.10	.16
공동귀인	6.38(2.23)	5.17(2.23)	.30		-.25	-.03	-.07	.08	-.01	-.04	-.09	-.04	-.01	-.00	-.04	-.04	-.03	.00	.01	-.02
자-배귀인	5.41(2.48)	5.44(2.34)	.23	-.12		.12	.20	.03	-.21	-.08	-.08	-.05	-.13	-.01	.12	-.16	.12	.16	.13	.16
안정귀인	5.72(2.37)	4.26(2.11)	.16	.25	.16		.25	.06	-.18	-.19	-.19	-.14	-.12	-.16	-.03	-.00	.12	.15	.03	.08
전반귀인	6.65(2.31)	5.38(2.44)	.12	.19	.18	.42		.15	-.33	-.27	-.32	-.30	-.30	-.17	-.19	.02	.21	.28	.19	.19
의도귀인	5.07(2.61)	4.36(2.36)	-.02	.00	-.03	-.10	-.00		-.20	-.20	-.17	-.14	-.21	-.08	.00	-.04	.18	.21	.22	.17
결혼만족	6.00(1.72)		.05	.28	-.09	.32	.19	-.05		.80	.76	.71	.68	.43	.20	.20	-.17	-.76	-.58	-.52
친밀성	6.72(1.51)		.01	.26	-.08	.26	.22	-.03	.80		.74	.70	.67	.46	.28	.23	-.20	-.74	-.56	-.48
상호소통	6.02(1.72)		.00	.26	-.03	.30	.23	-.01	.76	.74		.70	.59	.35	.29	.19	-.22	-.64	-.45	-.41
애정	6.22(1.66)		-.02	.22	-.09	.30	.24	-.12	.71	.70	.70		.56	.40	.25	.25	-.19	-.62	-.44	-.44
현재개입	6.35(1.65)		.01	.22	-.04	.26	.15	-.04	.68	.67	.59	.56		.53	.27	-.00	-.15	-.73	-.54	-.53
의무	7.46(1.32)		.11	.15	-.05	.18	.16	-.06	.43	.46	.35	.40	.53		.29	.03	-.00	-.52	-.40	-.45
투자	6.16(1.44)		.07	.09	.00	.09	.07	-.02	.20	.28	.29	.25	.27	.29		-.02	-.06	-.19	-.15	-.13
대안	5.57(1.63)		.01	.05	-.00	.12	.13	.06	.20	.23	.19	.25	-.00	.03	-.02		-.01	-.17	-.19	-.17
기대	7.25(1.38)	6.25(1.61)	.07	.16	.07	.40	.39	-.03	.42	.43	.37	.41	.35	.33	.21	.13		.19	.12	.16
이혼의도	2.08(1.56)		-.05	-.23	.06	-.21	-.15	.11	-.76	-.74	-.64	-.62	-.73	-.52	-.19	-.17	-.40		.73	.66
이혼사도	1.68(1.33)		.00	-.16	.01	-.19	-.13	.10	-.58	-.56	-.45	-.44	-.54	-.40	-.15	-.19	-.33	.73		.65
이혼계획	1.74(1.33)		-.01	-.12	.02	-.17	-.14	.05	-.52	-.48	-.41	-.44	-.53	-.45	-.13	-.17	-.33	.66	.65	

주 1) 표에서 왼쪽의 밑 부분에 제시한 상관계수 행렬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 자료에서 얻은 값이며, 오른쪽의 윗부분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 자료에서 산출한 값이다.

2) 자-배는 자기-배우자귀인을 의미한다.

들이 모두 좋아서 본 연구에서 수립한 공변량구조모형이 두 반분자료에서 모두 자료에 잘 부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공변량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반분된 두 자료를 중다표본분석한 결과에서 전반적 부합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전체 자료(N=493명)를 사용하여 배우자 행동의 귀인,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및 이혼의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립한 공변량구조모형을 검증하고, 이 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들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중다표본분석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공변량구조모형은 모형 내의 각 구성개념과 구성개념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하였으며, 하위 요인들의 측정치는 그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에서 얻은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비가중최소사승법을

표 7.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으로 구분해서 공변량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합지수	RMR	GFI	AGFI	NFI
긍정적 행동	.12	.92	.89	.88
부정적 행동	.11	.93	.91	.89

사용하여 모수치를 산출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에 사용된 18개 측정변인들의 상관행렬과 평균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각각에서 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보면 두 행동 모두에서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들이 좋은 부합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90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서 자료에 잘 부합되었다(표 7 참조).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별로 검증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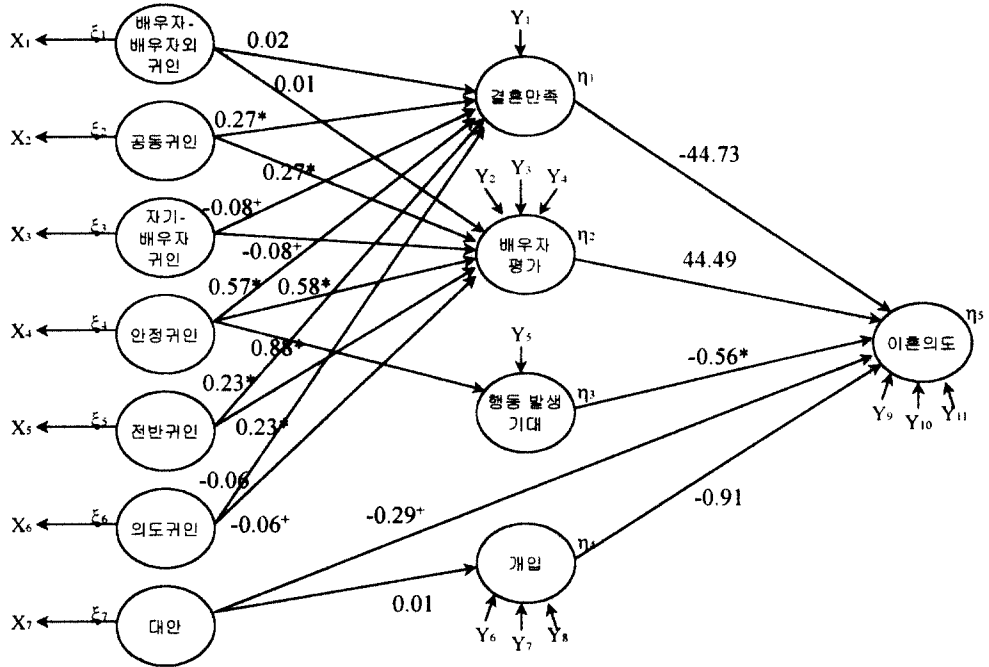


그림 2.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서 본 연구의 공변량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 중다표본분석에 사용된 18개 측정변인들의 상관행렬은 지면의 제약 때문에 실지 않았다. 이 자료도 교신저자에게 요청하면 얻을 수 있다.
- 통상적으로 고정지수는 2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서 각 경로별 계수의 고정지수가 0에 가까울 때 그 경로를 제거해도 모형의 부합도에는 별 지장이 없음을 의미하며 고정지수가 2보다 클 때는 그 경로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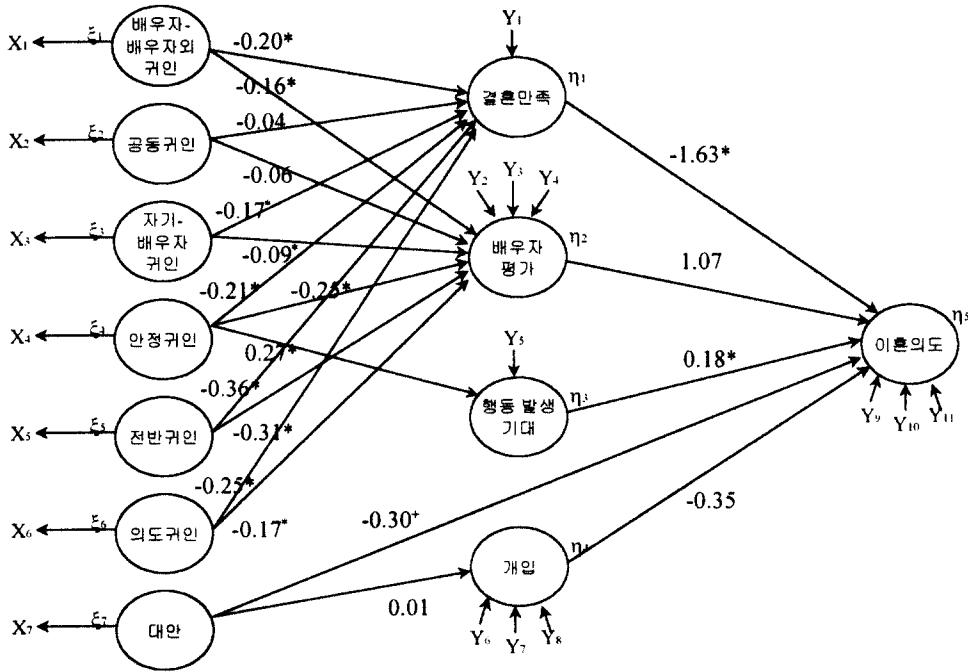


그림 3.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서 본 연구의 공변량구조 모형의 검증 결과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서 모두 전반적 부합지수들이 좋으므로 모형에 표시된 각 경로별 계수를 그대로 해석할 만큼 중요한 계수인지를 고정지수의 크기를 산출해서 알아보았다.

공변량구조모형의 검증에서 귀인이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한 가설별로 결과를 정리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이 표를 보면,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서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친 귀인차원들은 공동귀인, 안정귀인 및 전반귀인이었다. 안정귀인은 이후 유사한 행동이 발생하리라는 기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혼의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한편 의도귀인과 자기-배우자귀인은 가설과 다른 방향으로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대안관계 역시 가설과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서 대안관계가 많을수록 오히려 이혼의도가 낮았다. 그 밖의 다른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서는 공동귀인을 제외한 모든 귀인차원들이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안정귀인이 이후 유사한 행동이

발생하리라는 기대를 매개로 해서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배우자 평가나 대안관계 수준에 따라서 이혼의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부부관계에 개입된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의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서는 지지되지 않았으나, 부정적 행동에서는 유의한 경향을 보여서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으로 이혼의도를 높이는 효과가 개입수준에 의해서 완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논의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 가운데 지지된 결과들은 서론에서 본 연구의 가설들을 도출하는 배경을 설명할 때 논의점을 검토하였으므로, 지지되지 않은 가설들을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논의한 다음에 이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 및 장래 연구의 과제를 차례대로

표 8.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서 가설별 검증 결과의 요약

예측변인	내외귀인	공동귀인	자배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의도귀인	결혼만족	배우자평가	대안관계	개 입	기 대
긍정적 행동											
결혼만족	×	○	+	○	○	×					
배우자평가	×	○	+	○	○	+					
기 대				○							
개 입									×		
이혼의도							×	×	+	×	○
부정적 행동											
결혼만족	○	×	○	○	○	○					
배우자평가	○	×	○	○	○	○					
기 대				○							
개 입									×		
이혼의도							○	×	+	△	○

주) ○ 가설지지, × 가설 지지안됨, + 가설과 다른 방향으로 유의, △ 유의한 경향
 자배귀인은 자기-배우자귀인을 말한다.

로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관계만족, 상대방 평가 및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로 구성되는 전반적 공변량구조모형을 수립하고 이 모형에 포함되는 구체적 경로들을 교차타당화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수립된 모형에 대한 전반적 부합 지수들이 대부분 .90이상이어서 배우자 행동에 대한 귀인이 한편으로는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유사한 행동이 계속되리라는 기대의 추론 근거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가설이 지지되었다.

구체적 경로를 예언한 가설들 가운데 귀인차원과 관련하여 지지되지 않은 가설들만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서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귀인차원들이 서로 달랐다. 즉,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서는 내외귀인이, 그리고 부정적 행동에서는 공동귀인이 각각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서 내외귀인은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자기-배우자귀인은 가설과 다른 방향이지만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와 관련

되었다. 이 결과는 귀인차원으로 외적 극단에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자신과 아울러 외적 상황 및 제삼자귀인은 모두 포함시켜서 단순히 내외로만 구분하는 귀인범주로는 관계에서 중요한 귀인 정보를 간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지되지 않은 가설에 대한 논의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의도귀인이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을 의도귀인하면 의도귀인하지 않았을 때보다 결혼관계에 더 만족하고 배우자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긍정적 행동에 대한 의도귀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도귀인은 행동을 한 원인이 의도적이었는지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의도귀인을 배우자가 숨겨진 의도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해석했을 수 있다.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배우 후에 동기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실행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서 의도귀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의도와 부정적 의도로 의도귀인을 구분하여 측정해서 의도귀인의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들이 대체로 지지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관계만족과 관계해체의 관계를 다루는 선행 연구들(예: Rusbult, 1983)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를 보인 것은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및 개입의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모형을 검증했기 때문일 수 있다.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및 개입이 상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검증하게 되면 각 변인이 이혼의도로 가는 경로는 다른 변인과 관련되지 않는 독특한 기여분의 효과에 한정되어 추정된다. 따라서 각 변인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할 때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로 인한 영향력이 제외되어서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및 개입과 이혼의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의 상관은 $-.68 (p < .0001)$, 배우자 평가와 이혼의도의 상관은 $-.58 (p < .001)$, 그리고 개입과 이혼의도의 상관은 $-.58 (p < .001)$ 이었다. 따라서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및 개입이 이혼의도에 독자적으로 기여하는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로 보면, 세 요인은 각각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안관계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안관계가 있을수록 이혼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모두에서 예언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연애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수행한 결과에서 대안이 있을 때에 관계가 해체됨을 보여준 선행 연구들(e.g., Drigotas & Rusbult, 1992)과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혼관계에 불만족한 사람보다는 만족한 사람,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보다는 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대안관계를 더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대안관계의 질은 결혼관계에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

우에만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안의 질과 이혼의도의 관계가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수준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결혼만족수준과 배우자 평가수준을 중간점(9점 척도에서 5점)을 기준으로 결혼불만족 집단과 결혼만족 집단, 배우자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지닌 집단과 배우자에 대해서 호의적 감정을 지닌 집단으로 각각 구분하고, 각 집단 별로 대안관계수준과 이혼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 불만족 집단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지닌 집단에서는 대안 여부나 대안수준이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결혼관계에 만족한 집단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호의적 감정을 지닌 집단에서는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의도가 낮았다. 이 결과는 대안과 이혼의도의 관계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 극히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극히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적었다. 이 시사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에 극히 불만족하고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대안관계 여부가 이혼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안관계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대안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이중의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안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들 가운데 “이혼하고 싶더라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이혼하고 싶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혼할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이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혼만족/불만족집단, 배우자를 호의적/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집단에서 귀인차원들과 결혼만족 혹은 배우자 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 측정치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결혼관계에 만족하고 배우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분석의 결과가 이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 수준에 따라서 귀인차원과 결혼만족 및 배우자 평가의 관련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

펴보았다. 먼저 결혼만족과 배우자의 평가 반응을 9점 척도의 중간 점수인 5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결혼만족 집단(62.5%)과 불만족 집단(37.5%), 배우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한 집단(63.5%)과 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집단(36.5%)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각각에 대해서 본 연구의 가설로 제안된 구성개념들 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9~표 12 참조).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서 귀인차원들과 결혼만족 및 배우자 평가의 상관관계: 먼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서 귀인차원들과 결혼만족 혹은 배우자 평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만족 혹은 배우자 평가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귀인차원들이 서로 달랐다(표 9~표 10 참조).

표 9와 표 10에서 보듯이 결혼관계에 만족하거나 배우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공동귀인, 안정귀인 혹은 전반귀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관계에 더 만족하고 배우자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의 경우 자기-배우자귀인, 의도귀인과 결혼만족 및 배우자 평가 수준은 상호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결혼관계에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배우자귀인하고 의도귀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결혼관계에 더 불만족하고 배우자를 더 비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배우자귀인과 의도귀인에 관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결과는 부부관계에 불만족하고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에서 얻은 자료가 영향을 미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 결혼만족과 불만족 집단에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과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와의 상호상관

	평균(SD)		내외귀인		공동귀인		자기-배우자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의도귀인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내외귀인	6.06(2.33)	5.68(2.26)												
공동귀인	6.80(2.07)	5.38(2.17)	.26***	.30**										
자-배우자귀인	5.37(2.54)	5.71(2.17)	.24***	.17	-.00	-.29*								
안정귀인	6.17(2.33)	4.24(2.15)	.21***	.00	.21***	.05	.21***	.05						
전반귀인	6.92(2.28)	5.82(2.52)	.12*	-.09	.18**	.11	.24***	.18	.39***	.43***				
의도귀인	5.19(2.67)	5.43(2.22)	-.00	.17	-.04	.26*	-.04	.04	-.07	.04	-.01	.01		
만족	7.10(.84)	3.32(.88)	.02	-.12	.16**	.22	-.04	-.47***	.20***	-.13	.13*	-.02	-.11	-.20
평가	6.78(1.02)	4.19(1.00)	-.04	-.22	.19**	.04	-.00	-.24*	.16**	.05	.18**	.17	-.01	-.34**

표 10. 배우자의 평가가 좋거나 나쁜 집단에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과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와의 상호상관

	평균(SD)		내외귀인		공동귀인		자기-배우자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의도귀인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내외귀인	5.96(2.36)	5.98(2.10)												
공동귀인	6.74(2.12)	5.49(2.02)	.30***	.11										
자-배우자귀인	5.46(2.54)	5.57(2.25)	.21***	.32**	-.05	-.27*								
안정귀인	6.19(2.32)	4.57(2.19)	.19**	.16	.22***	.24*	.21***	.05						
전반귀인	6.93(2.30)	5.98(2.20)	.11	.01	.16**	.20	.21***	.19	.39***	.43***				
의도귀인	5.10(2.69)	5.56(2.11)	-.03	-.15	.01	.09	-.01	-.07	-.08	-.08	.00	-.01		
만족	6.92(1.12)	3.85(1.33)	.08	-.13	.21***	.22	-.08	-.37*	.15*	.18	.11	.15	-.01	-.27*
평가	6.94(.78)	3.69(.55)	-.01	-.12	.22***	.01	-.08	-.31**	.18**	.04	.19**	.22	.00	-.13

표 11. 결혼만족과 불만족 집단에서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과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와의 상호상관

	평균(SD)		내외귀인		공동귀인		자기-배우자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의도귀인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내외귀인	5.02(2.23)	6.19(2.05)												
공동귀인	5.23(2.25)	5.26(2.36)	.28***	.32**										
자-배귀인	5.05(2.32)	6.38(2.23)	.38***	.21	-.24***	-.31**								
안정귀인	4.00(2.01)	4.71(2.39)	-.01	.15	.00	-.02	.05	.12						
전반귀인	4.91(2.40)	6.71(2.20)	.08	.37***	-.03	-.04	.12	.35**	.24***	.10				
의도귀인	4.10(2.40)	5.63(1.87)	.13	.10	.12	-.16	-.06	.20	.04	.03	.14	.21		
만족	7.07(.85)	3.23(.90)	-.00	-.28*	-.01	-.04	.05	-.36**	-.10	-.28*	-.18**	-.40***	-.04	-.18
평가	6.78(1.02)	4.17(1.06)	-.05	-.21	-.08	-.01	.12	-.10	-.05	-.26*	-.17**	-.24*	-.01	-.12

표 12. 배우자의 평가가 좋거나 나쁜 집단에서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과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와의 상호상관

	평균(SD)		내외귀인		공동귀인		자기-배우자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의도귀인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호의적	비호의적
내외귀인	5.04(2.25)	6.20(1.88)												
공동귀인	5.13(2.25)	5.26(2.13)	.32***	.17										
자-배귀인	5.24(2.33)	5.95(2.18)	.36***	.26*	-.18**	-.30*								
안정귀인	4.03(2.07)	5.19(2.18)	-.02	-.00	-.01	-.04	.02	.19						
전반귀인	4.96(2.41)	6.70(2.05)	.12*	.39***	-.05	-.19	.16*	.42***	.23***	.12				
의도귀인	4.09(2.49)	5.36(1.81)	.15*	.17	.13*	-.06	-.06	.31**	.00	-.06	.11	.10		
만족	6.89(1.13)	3.66(1.37)	-.05	-.32**	.02	.00	-.10	-.42***	-.08	-.10	-.18**	-.32**	-.04	-.45***
평가	6.94(.79)	3.61(.59)	-.02	-.40***	-.04	-.09	.07	-.36**	-.06	-.15	-.23***	-.34**	-.03	-.10

한편 부부관계에 불만족하는 집단과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에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의 원인으로 기술한 내용을 분석하여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자기귀인하거나 배우자귀인한 사람들의 구체적 귀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부부관계에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들 가운데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배우자귀인한 사람들은 “이제야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이해하는 모양”, “술에 취해서”와 같은 불안정 요인으로 귀인하거나, “난폭한 성격”과 같은 나쁜 안정적 성격에 귀인하거나, 부정적 의도의 의미를 담은 귀인 내용들을 기술하였다. 반면에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자기귀인한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 의도”, 혹은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

등을 귀인내용으로 지적했다. 이 결과를 보면 구체적 귀인 내용은 여러 귀인차원들이 조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귀인차원의 주효과만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귀인차원의 효과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서 귀인차원들과 결혼만족 및 배우자 평가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각 집단 별로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차원과 결혼만족 혹은 배우자 평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1 ~ 표 12 참조). 결혼만족 혹은 배우자 평가수준에 관계없이 전반 귀인은 결혼만족 혹은 배우자 평가와 상관을 보였으며, 다른 귀인차원들은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자료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에 만족하거나 배우자를 호의적으로

로 평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들(전반귀인 제외)이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부부관계에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공동귀인을 제외한 모든 귀인차원들이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배우자 내적귀인하거나, 배우자귀인하거나, 안정귀인하거나, 전반귀인하거나, 의도귀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각각 결혼관계에 더 불만족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더 비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볼 때 전체 자료에서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있어서 전반귀인을 제외한 다른 귀인차원들의 효과는 결혼관계에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자료에 의해서 영향받은 결과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은 결혼관계에 대한 만족수준과 배우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에 따라 달랐다. 다시 말해서 결혼관계에 만족하거나 배우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에 따라서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가 달라진 반면, 결혼관계에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귀인에 따라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가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결혼관계에 만족하거나 배우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은 공동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하고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은 구체귀인함으로써 결혼만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결혼관계에 불만족하고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 배우자 내적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의도귀인함으로써 결혼관계에 대한 불만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비호의적 평가를 유지하였다. 이 결과는 부부관계와 배우자에 대한 만족수준에 따라 귀인이 달리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이 만족수준들을 유지하거나 더욱 높이도록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 사실은 Bradbury와 Fincham(1990, 1993)이 제안하는 결혼만족→귀인→결혼만족의 순환적 영향관계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장래 연구에서는 이 시사점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귀인차원들의 상호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한국의 부부들이 서구의 부부들처럼 배우자 행동을 귀인할 때 결혼만족수준에 따라서 여러 귀인차원들이 상호상관되는 일관된 형태를 이루는지를 살펴보았다. Fincham과 Bradbury(1993)는 내적귀인, 안정귀인 및 전반귀인으로 구성된 귀인지수의 신뢰도가 .85~.88에 이른 결과에 근거해서 이 귀인차원들에서 얻은 평정치들을 합산하여 이 값과 관계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처럼 여러 귀인차원들에서 얻은 평정치들을 합산하려면 귀인차원들이 단일차원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상호상관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결혼관계에 만족하고 배우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공동귀인, 안정귀인, 혹은 전반귀인함으로써 결혼관계에 더 만족하고 배우자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귀인한 결과에서는 전반귀인을 제외하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에 결혼관계에 불만족하고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귀인한 결과에 의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의도귀인과 자기-배우자귀인은 가설과 다른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임),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배우자 내적귀인, 안정귀인, 전반귀인 및 의도귀인하는 등으로 불만유지 귀인을 할 때 결혼관계에 더 불만족하게 되고 배우자를 더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radbury와 Fincham의 주장처럼 사전의 관계만족수준에 따라서 상대방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서 모두 일정한 귀인 양상을 보인다고 가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귀인차원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귀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한 행동 자극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에 따라, 그리고 사전의 관계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수준에 따라 귀인차원들 간의 상호상관이 달랐다. 예컨대 결혼관계에 만족하고 배우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배우자 내적귀인할수록 더 공동귀인하고, 안정귀인하며, 전반귀인함으로써 이들의 주장과 유사하게 네 개의 귀인차원들의 평정치가 서로 상관되었다. 반면에 결혼관계에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내적귀인할수록 대체로 공동귀인함으로써(불만족집단 $r = .30$, 비호의적 평가 집단 $r = .32$) 적어도 네 귀인차원들 가운데 두 귀인차원들만 서로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귀인연구에서 귀인차원들에서 평정한 값을 합산한 귀인지수를 총점으로 산출하는 기법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 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차 다루어야 할 연구 과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원인 귀인이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귀인은 사전에 지니고 있는 부부관계의 만족이나 배우자의 평가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은 본 연구에서 관계만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호의적 평가수준에 따라 구분한 두 집단에서 각각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귀인이 관계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사전의 결혼만족, 배우자 평가 및 이혼의도를 측정하고 이 변인들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제거하거나, 혹은 이 변인들의 효과를 포함시키는 상호작용 모형을 개발하여 귀인의 효과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계에서 배우자의 행동을 설명할 때 중요한 귀인차원들이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미치는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부부들이 배우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귀인한 내용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평가와 관계만족이 달라지게 되며 구체적 귀인내용은 다양한 귀인차원들이 조합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귀인내용이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로 본 연구에는 결혼만족과 배우자에 대한 호의적 평가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두 측정지들의 분포가 부적 편포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관계에 불만족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

문에 본 연구의 가설들 가운데 일부가 지지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관계에 극히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매우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에 만족하고 배우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구분하여 가설들을 검증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넷째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서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친 귀인차원들이 서로 달랐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이 대부분 긍정적 행동의 원인에 응답할 때는 매우 좋았던 행동을 고려한 반면에 부정적 행동의 원인에 답할 때는 상대적으로 약간 나빴던 행동을 많이 고려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장래 연구에서는 행동의 평가수준에 따라 귀인차원들이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행동에 대한 귀인이 한편으로는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 배우자가 장차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종국적으로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변량구조모형을 검증하여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 모형은 다른 표본에서도 교차타당화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한국에서도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 뿐만 아니라 이혼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귀인 요인들 가운데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 귀인(locus of causality)으로 내외귀인, 공동귀인 및 자기-배우자귀인을 다루었다. 연구의 결과에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내외귀인은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공동귀인과 자기-배우자귀인은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로부터 친밀한 대인관계에서는 국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된 기존의 내외귀인 범주를 확장하여 관계를 이루는 대상 별로 귀인과정을 연구하는 접근법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전반귀인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두 구성개념을 서로 중복되는 내용으로 측정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예: Bradbury & Fincham, 1990). 예를 들면 결혼만족척도(예: MAT, DAS)들은 결혼생활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양자가 합치를 이루는 정도를 측정한다. 다음에 부부 간의 일치도 측정치들을 합산하여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법으로 결혼만족도를 측정할 경우 전반귀인의 측정과 중복된다. 본 연구에서 전반귀인과 결혼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내용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측정하고 두 구성개념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귀인과 결혼만족을 중복되는 부분 없이 측정하여 다른 경우에도 전반귀인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수준에 따라 상호 관련성을 보이는 귀인차원들이 달랐다. 이 결과는 행복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긍정적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 모두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향상귀인(relationship enhancing attribution)을 하는 반면에 불행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이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모두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만유지귀인(distress maintaining attribution)을 한다는 Bradbury와 Fincham(1990)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주장이나 연구 결과와 다르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에서 부부관계를 연구할 때 귀인차원들에서 얻은 측정치들을 총화하는 귀인지수의 산출기법이 적절하지 않다.

참 고 문 헌

이경성 · 한덕웅 · 강혜자(1995). 사적 대인관계에서 행동의 원인과 이유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65-84.

이경성 · 한덕웅(2000).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13-137.

Berg, J. H., & McQuinn, R. D.(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42-952.

Camper, P. M., Jacobson, N. S., Holtzworth-Munroe, A., & Schmalig, K. B.(1988). Causal attributions for interpersonal behaviors in married coupl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195-209.

Drigotas, S. M., & Rusbult, C. E.(1992).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A dependence model of break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2-87.

Fincham, F. D., & Bradbury, T. N.(1993).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ttribution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42-452.

Fincham, F. D., & Linfield, K. J.(1997). A new look at marital quality: Can spouses feel positive and negative about their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89-502.

Kelley, H. H., & Michela, J. L.(1980).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 457-501.

Kyle, S. O., & Falbo, T.(1985).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stress and attributional preferences for own and spous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 339-351.

Levinger, G.(1979). A social exchange view on the dissolution of pair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 L. Huston(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pp. 169-193). New York: Academic Press.

Lund, M.(1985).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commitment scales for predicting continuity of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3-23

Rusbult(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 invest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 101-117
- Rusbult, C. E.(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Silars, A. L.(1985). Interpersonal perception in relationships. In W. Ickes(Ed.), *Compatible and incompatible relationships*(pp. 277-305). New York: Springer-Verlag.
- Thibaut, J. W. & Kelley, H. H.(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Van Yperen, N. W., & Buunk, B. P.(1990). A longitudinal study of equity and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287-309.
- Weiner, B.(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Effects of Attribution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Intention

Kyung-Seong Lee and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covariance structural models that include the effects of attributions on marital satisfaction, partner evaluation, and intention to terminate marriage. This study proposes a model that includes paths which attributions to spouse's behavior affect marital satisfaction and spouse evaluation directly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divorce intention via expectation that the spouse will show similar behavior indirectly. In order to test the fitness of this model and each detailed path,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493 married people (male 246, female 247). The locus of spouse, dyad relationship, self-spouse, stability, globality, and intent were used as attribution dimensions of spouse behavior. The results revealed that this model was well-fitted to the data. Among the specific examinations of the relationship, most of the hypotheses were confirmed. Unsupported hypotheses were as follow: The locus dimension in positive behavior and the dimension of both sides in negative behavior did not affect the evaluation of the spouse significantly. While the locus dimension of positive behavior did not affect marital satisfaction and spouse evaluation, contrary to the hypothesis, the self-spouse attribution dimension that measured only a part of the external endpoints did affect marital satisfaction and spouse evaluation. This result shows that if we use the locus dimension that includes external circumstances and the self, we neglect the important causal inform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lationship situation. It was suggested that we need further studies to deal with the effect of the attribution dimensions according to causal of attribution expanding the existing taxonomy of causality in causal attribution. Finally, the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opics to be investigated in the further study were mentioned.

Keywords: marital relationship, attributional process, marital satisfaction, divorce intention, covariance structure model, empirical study

원고 접수: 2001년 6월 27일
심사 통과: 2001년 7월 13일